



요즘은 웬만한 공터에만 나가보더라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케이팅에 열광하는 이들에게는 오로지 흥겨움만 가득하다.

몇 년 전,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됐던 인라인 스케이트 열풍이 이제는 모든 세대를 연결시키는 코드로 여겨질 만큼 많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여의도 공원, 올림픽 공원은 물론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 중랑천 둔치 길 등은 주말만이 아니라 평일 오후에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인파들로 항상 열기에 넘친다.

회사의 동호회 활동도 이와 같은 세대를 반영하듯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이곳 저곳에서 하나 둘씩 생겨가고 있다.

인라인 동호회-여사원들의 열광적 지지

신무림제지의 무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Moorim Inline Skating 이하 무림 인라인 동호회)도 이러한 시대적 유행에 살짝 편승해 지난 3월, 15명의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첫 발을 내디뎠다.

기자가 무림 인라인 동호회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간 한강 반포 지구 둔치에는 족구를 하는 사람, 농구를 하는 사람,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 등 매우 많은 인파가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그러나 신무림제지의 인라인 동호회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

었다. 무림 인라인 동호회의 가장 큰 특징, 4:11이란 심각하게 불균형한 남녀성비 때문이다. 여성들에 둘러싸여 있는 남성들의 무리를 찾으면 그만이었다.

무림 인라인 동호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와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무림 인라인 동호회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금팀의 김도현 대리를 제외한 대다수 회원들은 인라인 스케이트에 처음 올라본 완전 초보들로 구성돼 있다. 약간의 스케이팅 실력만 발휘할 수 있는 남자 사원이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아마 왕자(?)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다.

무림 인라인 동호회는 여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다. 또 15명의 회원, 개근하는 10명의 열성회원 중 여직원의 비율이 항상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한강에 나가는 정기모임 때마다 근처 다른 동호회(물론 대부분의 다른 동호회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회원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항상 따갑게 쏘인다.

동호회 모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호회가 설립된 3월, 첫 번째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팀 김모 여사원이 '앞으로 가기'를 연습하던 중 갑자기 고 난이도의 '뒤로 가기'에 성공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일화가 있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깜짝 놀라 "아니, 앞으로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뒤로 가기를 한담?" 하면서도 원래 그렇게

바람을 가르며 자유를 만끽한다



배워야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결근길로 슬금슬금 그 여직원을 훑쳐보며 '뒤로 가기'를 연습하는 등, '앞으로 가기'보다 '뒤로 가기'를 먼저 배운 믿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었다고 한다.

몇 달전 동호회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를 회상하며 김 대리는 "왕기초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처음 교육할 때만해도 비척거리며 앞으로 나가는 초보 회원들의 뒷모습을 보노라면 '뼈약' '뼈약' 하며 무리지어 나가는 병아리 떼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중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웃음을 지어 보인다. 물론 김 대리도 3년 전에는 그와 똑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세대를 관통하는 문화 아이템

인라인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잠시나마 탈피해 시원한 강바람(모임장소가 회사 앞의 한강 반포지구 둔치임)을 가르며 배우는 재미에 너나할 것 없이 푹 빠져 있다. 특히 탁 트인 공간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면 누구나 해방감을 듬뿍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매료, 인라인 스케이트를 정기모임 때만이 아니라 매일 타러 가자고 조르는 매니아급 회원들도 꽤 있단다.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라인 동호회에도 복병이

찾아온 적이 있다. 4월 셋째주와 넷째주에 걸쳐 본사 전사원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샵 때문에 정기모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발끈(?)한 열성 회원들의 "그러면 두 주 동안이나 모임이 없는 것이냐"는 아쉬움에 찬 투정 때문에 김 대리의 전화통은 한 동안 불이 났다고 한다.

김 대리는 "몇몇의 신생 벤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조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사내에 동호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모든 구성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이템이 부족한 편인데, 인라인 스케이트는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매개체라고 생각한다"며 "동대문 롤러스케이트장을 기억하는 386세대나 스노우 보드와 바퀴 달린 운동화에 열광하는 월드컵 세대, 아니 그 부모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며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제지업이 굴뚝산업이자 장치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회사분위기도 보수적이고 고루할 것이라는 신무렵제지에 대한 선입견은 인라인 동호회와의 한강 데이트를 통해 무참히 깨졌다. 한강 반포지구에는 젊고 강한 열정의 무림인 만이 있었다.

(조갑준 기자)